

# 광주·전남 지역경제 올해도 먹구름

##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 ... 수출감소·내수부진 지속

### “성장률 국가 경제보다 낮은 1.9~2.4% 머물 것”

올해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국내 경제 성장세의 둔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둔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소득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과 임형섭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낸 ‘광주·전남 지역경제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 간 광주전남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실질성장률을 상호 비교한 결

과 올해 광주·전남의 경제성장세가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1.9%에서 2.4% 내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경제는 미국·신중국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2016년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에 따른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 지역 내 소비 및 투자심리 저하 등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인 광주·전남은 올해도 각각 실질성장률이 2.2%~2.4%, 1.9~2.1%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제 경제의 변화, 국내 경제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지역경제는 2016년에 비해 완만하게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지난해 광주는 자동차(-1.7%), 반도체(-1.5%), 냉장고(-12.9%) 등이 부진했고, 전남은 석유제품(-20.8%), 합성수지(-10.0%), 철강판(-9.0%), 기타석유화학(-0.9%) 등이 부진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철강, 조선 등 신중국 설비 증설 지속, 경쟁 과열 등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가전·자동차 등은 수출 호조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저성장으로 현재까지 양호한 광

주·전남의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한계계층의 소득 수준 및 부채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국내외 경제의 단계적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 구조변화 대응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선 공약 발굴과 국정 과제 대응방안 마련 등 지역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지역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년간 광주·전남의 GRDP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각각 3.6%, 3.0%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0.7%p 및 1.3%p 낮게 나타났다. /윤현석기자chadol@

## 권노갑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됐다

### DJ내란음모사건 연루 구급

### 이훈평·유훈근도 인정받아

영원한 DJ팬으로 지칭되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사진)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됐다.

광주시는 2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지사를 열고 심사대상 431명 중 권 이사장 등 177명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함께 신청한 이훈평(73) 전 국회의원, 유훈근(77) 전 김대중대통령 공보비서도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권 이사장 등은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DJ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구금됐으며 정치권 인사 중 사실상 마지막 신청자로 알려졌다.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로서 5·18 국립묘지 안장 대



상이 된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말 보상심사위원회에 나와 “5·18묘지에 묻히기 위해서는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5·18 민주화 운동 보상에 지금까지 9234명이 신청, 이번을 포함해 5694명이 유공자 지위를 받았다.

이번 보상은 2006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된 6차 보상 이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694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인정된 유공자에게는 평균 143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 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구급 등을 당했을 경우 1일 기준 24만1200원을 받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양계협회 “소득안정자금 현실화하라” 22일 오후 대한양계협회 소속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관련 소득안정자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제2 우병우 방지 ... 우월 지위 악용 검찰수사 개입 엄벌”

### 김동철,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구) 의원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김사가 소속 삼급자 이외의 인물로부터



부당한 지위나 감독을 받으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한 수사 개입을 신고받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아 일선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서구 계수교차로 하루 24만9643대 ‘교통량 최대’

### 2016년 광주 교통 기초조사

지난해 광주 도심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이 소폭 감소한 반면 외곽 지역의 시외 유출입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광주 지역 주요 교차로 60곳과 시외 유출입 지점 23곳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한 ‘2016 교통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서구 계수교차로가 24만9643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석교차로(22만3521대) ▲상무교차로(21만6264대) ▲산월IC(19만9366대) ▲서창교차로(17만6710대) ▲포암사거리(17만3058대) ▲광주여대 사거리(16

만4784대) ▲광천사거리(14만9640대) 등의 순이었다.

하루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출근시간인 오전 8~9시였다.

이 시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계수교차로(1만6603대), 우석교차로(1만6015대), 산월IC(1만5236대), 상무교차로(1만4458대), 광주여대사거리(1만3521대), 서창교차로(1만3243대), 포암사거리(1만2947대), 백운광장(1만980대), 광천사거리(1만919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1순환도로 내부 원도심 25개 교차로의 교통량은 217만여 대로 전년 대비 6.13% 감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공직사회 새바람 부나

### 소통 강화·불합리 관행 개선

### 이지사와 번개팅·수다 점심

전남도가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낙연 전남지사와의 섞어번개팅, 수다점심, 청찬릴레이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행 한 달을 분석한 결과 조직 내 소통과 공감, 표창과 문책, 점검과 예방 등 3개 분야에서 각 부서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소통과 공감’ 분야가 가장 참여도가 높았으며, 참여자들은 쌍방향 소통

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가 아이디어를 낸 ‘직원과 지사의 섞어 번개팅’은 자율 참여 직원들과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가족과 생활 등을 화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거리가 한결 가까워지고 있다.

1월 실천과제는 ‘진절과 업무 인계인수 철거’로 자치행정국이 참여해 김밥과 계란을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2월에는 감사관실과 여성정책관실에서 ‘연가 잘 쓰기와 도민의 입장에서 일하기’ 캠페인 분위기를 장미꽃과 음력으로 조성했다. 3월부터는 매월 밝고 맑은 직장 만들기 우수 부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상담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 www.emsolar.kr